

수직고경 상실환자의 포괄적인 전악 보철 수복 치료

유지광 *
(탐치과병원)

치아 우식이나 치주질환으로 상실된 구치부로 인해 기인된 수직고경의 상실과 전치부 마모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기능의 감소, 인접치아와 대합치아의 이동에 의한 불규칙한 교합평면, 교합고경의 감소, 치아의 비정상적인 마모를 동반한 비정상적인 악간 관계의 형성, 전치부만의 저작으로 인한 병적인 치아의 이동, 과도한 피개교합의 형성, 교합의 불안정으로 인한 악관절 장애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기능과 심미, 편안함을 위한 수직고경의 증가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개 또는 몇 개의 치아 수복과는 다른 접근을 요하는 것으로 전악 수복이 필요한데, 정확한 진찰을 통한 진단과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치료계획을 통해 진행해 가야하며, 이를 통해 수립된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상실된 수직고경을 회복 시켜주는 것이 우선으로 이를 통해 심미적,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수직 고경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점진적 거상법과 일시적 거상법으로 나뉜다. 점진적 거상법은 splint를 이용하여 안정공극내에서 수직고경을 증가한 후 환자의 적응성 여부를 관찰한 후 이와같이 새롭게 설정한 수직고경에 환자가 적응하여 새로운 안정공극이 생기면 또 이 범위내에서 splint에 레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수직고경을 거상하여 적절한 심미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은 후 임시수복물을 장착하여 환자의 심미, 기능, 적응성 등을 재확인하고 최종보철물로 이행하는 방법이다.

일시적 거상법은 적절한 수직고경이라 생각되는 위치로 한번에 거상시키는 방법으로서, 상악악 모델이 중심위로 부착된 교합기상에서 진단 wax up을 통해 제작된 가철성 overlay denture나 고정성 임시수복물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임상 술식에 있어서 훨씬 더 간단하고, 적절한 수직고경을 얻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며 일시적인 수직거상을 환자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조절이 용이한 장점을 갖는다.

이처럼 수직고경을 회복시키는 경우에는 임시수복물을 이용하여 환자의 적응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 치주조직과의 관계, 교합, 임시치아를 통한 최종 보철물의 형태, 크기, 모양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증례는 다수의 치아상실로 인한 수직고경의 상실과 전치부 마모를 가진 환자로 고정성 임시수복물과 임시 의치를 이용한 일시적 거상법을 통하여 수직고경의 안정을 확인하였으며, 치열의 측방운동시 우측은 균기능교합으로 좌측은 견치 유도 교합으로 형성하였다. 최종 수복물은 상악에는 전치부의 금속도재관과 심미와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magnetic & konus denture를, 하악에는 금속도재관과 일반적인 clasp retained RPD를 제작하여 포괄적인 전악 보철 수복을 통한 심미적, 기능적 회복이 되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